



Giorgio Armani

1964년 남성복 디자이너 니노 세루티 발탁

1974년 조르지오 아르마니 S.p.A.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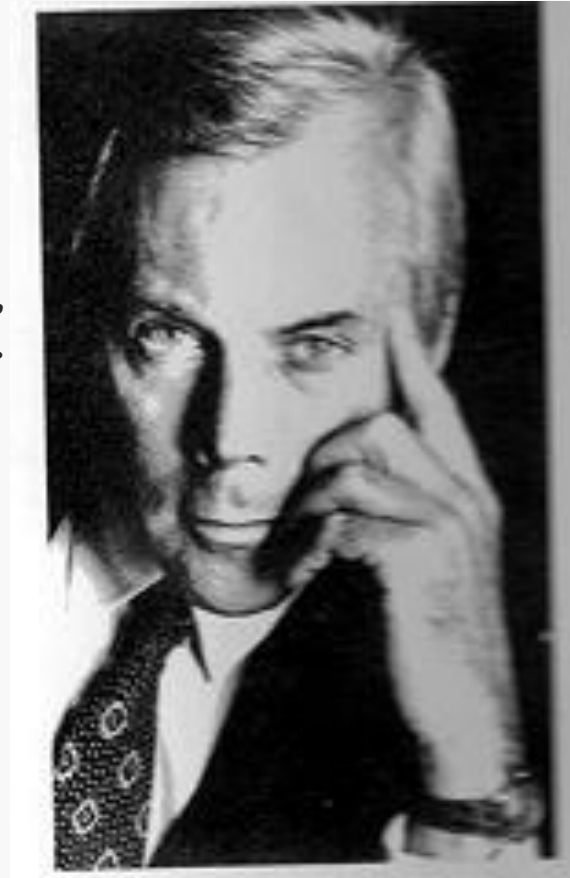
1982년 타임지 커버 모델

1983년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상

His Life ..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이탈리아가 낳은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계 인사이다. 의약과 사진 분야에 잠시 몸담았던 그는 1964년 서른의 나이에 아주 우연히 패션업체에 입문했다. 밀라노의 대형 백화점에서 바이어로 활동했던 그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패브릭과 디자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아, '니노세루치'의 디자이너로 전격 발탁됐다. 이후 '웅가로'와 '제나'를 거쳐 1974년에 자신의 이름의 남성 브랜드를 런칭했고, 자칫해에 여성 컬렉션 선보였다. 남성복과 여성복의 성능에 힘입어 1975년 이후부터 조르지오 아르마니 추니어, 언더웨어, 수영복, 액세서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며 나갔다. 또한 1981년에는 저렴한 가격대의 디퓨전 라인을 판매하는 스텝을 오픈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르마니 왕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2천여 개의 매장에서 연간 1조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0 f/w collection



2010년 가을/겨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쇼에서는 남성적인 스타일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다. 특히 가죽장갑과 워커 그리고 특공대 느낌의 베레모에서 거칠고 강인한 느낌이 든다.

모델도 스키니한 모델보다는 남성적인 모델들이 많이 보인다.